

## 여수 소리도 해상 또 경유 200t 유출 '씨프린스 악몽' 여전

### 유조선 하루 33척 통과...조류 빨라 위험 상존

지난 11일 오후 8시10분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쪽 18km 해상에서 제주선적 4천500t급 유조선 '홍양호' (선장 유모·58)와 여수선적 90t급 어획물 운반선 '801창영호'(선장 정모·71)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조선 기름 탱크가 파손되면서 경유 200t이 해양으로 유출됐다. 여수해경은 12일 방제정과 경

비정, 민간방제선 등 52척을 동원해 선박 주변에 오일펜스를 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현재 소리도 해상에는 반경 500m에 길이 3km에 이르는 기름띠가 떠있으며, 현장 주변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해경은 일단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까운 양식장이 15km나 떨어져 있고 원유와 달리 휘발성이 강한 경유여서

큰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제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인근 양식장이나 해변을 오염시킬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크다.

이번 홍양호 기름 유출사건은 남해안이 유조선 사고의 위험해역이란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우선 이번 사고현장은 지난 1995년 7월 여수시 남면 소리도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 해역과 불과 18km 떨어진 인접해역이다. '씨프린스호 사고'는 유조선이 침몰되면서 5천여t의 원유가 유출돼 무려 3천826ha의 청정 바다를 오염시킨 우리나라 최대의 해양오염 사고다.

소리도 해상에서는 왜 유조선 사고가 잦게 일어날까. 우선 소리도 해상은 조류가 빠르고 너울이 높기로 유명하다. 울어들어만 벌써 15차례의 크고 작은 해난사고가 발생했다.

광양항과 여수항을 이용하는 유조선의 통과 항로란 점도 있다. 지난해 이 항로를 통해 광양·여수항에 입항한 유조선은 무려 1만1천885척. 하루 평균 33척이 이곳을 지나가는 셈이다.

여수 앞바다에서 급유선으로 연료를 공급받다가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 새벽 여수시 오동도 북쪽 3km 해상에서 화물선이 급유선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던 중 기름 500t 가 바다로 유출됐고, 지난해 12월에도 유조선이 연료유를 공급받던 중 벵커C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광일기자 kps@kwangju.co.kr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퍼지는 기름띠 지난 12일 오후 여수 소리도 남면 해상에서 충돌한 유조선 '홍양호'와 어획물 운반선 '801창영호'가 바다 한가운데 멈춰서 있다. 유조선 주변에 연한 기름띠가 넓게 펼쳐져 있다. <월간조총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김상목 경위> /여수 소리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社 告

## '종교칼럼' 필진 바꿉니다

광주일보 매주 금요일자 종교·복지면에 소개되고 있는 '종교칼럼'의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개신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의 성직자들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사색의 시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이름은 가나다 순)



기영호 신부 도암 스님 박병주 목사 최광선 교무

◇기영호 신부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국 차장)

▲광주가톨릭대학 졸업 ▲광주가톨릭대학원 신학석사 ▲임곡동성당 주임

◇도암 스님 (송광사 율원 교수)

▲동국대학교 철학과·불교학과 졸업 ▲봉선사 능엄학림 졸업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

◇박병주 목사 (광주 열린교회 담임)

▲충신대학교 졸업 ▲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최광선 교무 (원불교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원광병원 법당 담임)

▲원광대 원불교학과 졸업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철학 박사 ▲원불교 문화교당 근무

光州日報社

## 민주 능력 공천 "유권자는 없다"

### 공약 대결 실종... 지역발전에 악영향 광주·전남 현역 30% 탈락 오늘 윤곽

### 총선 D-27

4·9총선이 27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통합민주당측의 능력 공천으로 인해 이번 선거가 정책대결이 사라지고 조직력과 지역정서를 동원한 벼락치기 '바람선거'로 변질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통합민주당이 광주·전남 20개 선거구 가운데 단 1곳의 후보도 확정하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이 공약 및 정책 비교 등을 통해 후보를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검증 자체가 물거품될 위기에 있다.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는 12일 밤 늦게 호남 현역의원 30% 교체 대상을 확정하고, 호남 일부 및 비호남권 결합 지역에 대한 2차 심사를 마무리했다.

통합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르면 13일 중 2차 컷-오프를 통과한 2배수의 예비 후보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국민 여론조사 경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주말에야 18대 총선 최종 공천자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선거를 20여일 앞두고서야 각 정당의 후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의 능력 공천은 '호남=덧발'이라는 안이한 자세로, 지역정서에만 의존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오만한 인식 때문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바람직한 공약 대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지역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지역발전을 소홀히 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통합민주당의 능력 공천은 또 한나라당이나 무소속 출마예정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정책을 개발해 놓고 있지만 경쟁자가 정해지지 않은 데다 유권자들의 무관심까지 겹쳐 '장롱 속 공약'에 그칠 수 있어서다. 광주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

민주당이 쇠신공천과 한나라당 견제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능력 공천'으로 실망하고 있다"며 "예비후보들이 정책개발보다는 조직 꾸리거나 얼굴 알리기에만 열중하면 총선 민의가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경찰 "네 母女 피살 이호성 단독 범행"

서울 창천동 4모녀 피살사건을 수 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2일 이번 사건을 전직 프로 야구 선수 이호성(41)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또 이씨가 김씨로 부터 빌린 1억7천만원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7천만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경찰은 이날 "김씨의 아파트와 승용차에서 15개의 지문을 찾아내 감식한 결과 김씨 집 안방의 라이터와 승용차의 생수병에서 발견된 지문이 용

의자 이씨의 지문과 일치했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가족 피살사건은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도피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당일 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파라과이행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적의 친환경 생활공간

# 남악신도시 한옥단지 분양

정남향배치, 탁월한 조망권 최고급명품 한옥단지  
대규모의 한옥에서 도시사와 이음이 되는 기회!

전남도 조례에 의거 3천만원 용지지원 10년 거주 7년상환연2%

전남개발공사